

전북교육 10대과제, 민관 거버넌스로 실현

제3기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개최... 올해 주요 의제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3기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위원장 조정현)'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위원회의 정책 제안 역할을 공고히 하고, 2026년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를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제3기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ESG △인성교육 △지역사회협력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실효성 있는 전북교육 정책 발굴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3기 출범 이후 각 분과는 분야별 특

성을 살린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했다.

ESG 분과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구축 방안을 제안했으며, 인성교육 분과는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및 청소년 자치공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전북형 인성교육 모델 마련에 나섰다.

지역사회협력 분과는 지역별 지자체 협력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연계 교육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조정현 위원장은 "교육 정책의 성공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달려 있다"며 "위원회에서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3기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28일 개최했다.

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청이 제시한 10대 핵심과제가 현장의 살아있는 정책으로 안착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전북교육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역·대학·산업 연계 성과공유... 지속가능 협력 모델 확산

우석대, WIN-RISE 성과공유회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28일 라한호텔 전주 1층 온고을홀에서 2025 WIN-RISE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JB 지식산업센터 등이 공동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와 대학 간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과 WIN-RISE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는 서창훈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용학 교육부 교육개혁지원관, 채수찬 JB 지식산업센터장이 이은미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박충화 대전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을 비롯해 지자체와 산업체, 연구기관, 도내 대학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날 행사에 김광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축하영상상을 보내 WIN-RISE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광영 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석대학교는 대학의 담장을 넘어 도민들과 함께 지역산업과 기술혁신을 선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우석대학교의 도전을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1부에서는 이석래 한국연구재단 사



28일 라한호텔 전주 1층 온고을홀에서 우석대학교 '2025 WIN-RISE 사업 성과공유회'가 열린 가운데, 서창훈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 박노준 우석대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무총장이 미래를 바꾸는 과학기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 정희석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장이 WIN-RISE 사업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1년간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했다"라고 말했다.

정희석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장은 주요 성과로 △AI/ITX 기반 교육체계 전환으로 산업·과제별 AI 적용 교육 확대 및 현장 수요 기반 교과·비교과 개편 △지역 정주형 취·창업 역량 강화 비교과 이수자 5277명, 특성화 동아리 60팀 운영 △연구클러스터 및 사업화

성과로 특허 11건, 기술이전 4건, 시제품 6건, SQ급 논문 8편 포함 총 28편 발표 △평생교육 및 글로벌 인재 정주를 위한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JB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등을 소개했다.

이어 전주·완주·남원·정읍·장수·부안·순창·임실 등 기초 지자체와 연계한 리빙랩·로코노미 사업을 통해 22개 분과, 608명이 참여해 총 37개의 지역 과제를 발굴했으며, 미식 관광과 영화의 거리 브랜딩, 청년축제 등 지역 체류형 성과도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신기택 (주)신성&S 대표

와 흥문기 신한방직(주) 기술연구소장, 조은정 장수군 농식품마케팅팀장 등 기업·연구기관·지자체 관계자들을 위한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JB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등을 소개했다.

이어 전주·완주·남원·정읍·장수·부안·순창·임실 등 기초 지자체와 연계한 리빙랩·로코노미 사업을 통해 22개 분과, 608명이 참여해 총 37개의 지역 과제를 발굴했으며, 미식 관광과 영화의 거리 브랜딩, 청년축제 등 지역 체류형 성과도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신기택 (주)신성&S 대표

국립군산대 인권센터

인권위와 함께하는 워크숍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 27일 인권위원회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임가족 총장 직무대리, 권양섭 인권센터장 과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인권센터 운영 현황 공유, 대학 내 인권 이슈 및 과제 논의, 향후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인권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생 참여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립군산대학교 권양섭 인권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인권센터가 추진해 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체계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국제 의료협력 모델 실천

학교법인 원광학원 · 원광대병원 베트남 견터성서 합동 의료봉사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견터성에 위치한 남견터대학교병원에서 제7회 원광학원 합동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일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제 의료협력 모델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봉사에는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등 원광학원 산하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의료진과 교직원 학생 현지 베트남어 통역사 등 총 80명 규모의 봉사단이 파견됐다.

이번 의료봉사는 단순 진료를 넘어 의료봉사 헬스케어 서비스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통합형 국제 의료봉사로 운영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소화기내과 신부인과 유방갑상선외과 영상의학과 한방치과 의료진이 참여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진료를 제공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시력검사 및 안경 지원을 비롯해 헤어 네일아트 퍼스널케어 진단 두피 검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함께 진행됐다.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견터성에 위치한 남견터대학교병원에서 제7회 원광학원 합동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복 입기와 전통 소품 만들기 등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봉사를 넘어 문화 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그 결과 봉사 기간 동안 약 3500명 이상의 현지 주민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봉사 기간 중 열린 합동 의료봉사 개최식은 모친원 원광학원 상임이사 장승환 봉사단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강경화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장 김성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서경숙 원광대학교병원 진료처

장 김병문 원광대학교병원 적정의료관리실장이 참석했다.

남견터대학교병원 측에서는 필립 켄 의료고문위원회 의장 담 반 크영 병원장 응우옌 반 타이 부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어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는 김병문 교수가 자중경부암의 치료 및 예방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견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켄꾸옥 휘 교수는 신생아 혈당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양 기관 간 학술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한층 확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물질·에너지' 세계 석학들 전북대서 연구 성과 공유

전북대 G-랩 사업단, 오늘 기초과학 포럼 시카고대·반동공대 등 해외 연사 참여

전북대학교 G-랩(LAMP)사업단이 국내외 기초과학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아 물질·에너지 분야 국제공동연구 확대에 나섰다.

전북대 G-랩(LAMP)사업단은 오는 29일 전북대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두 번째 국제 기초과학 성과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2월 처음 열린 국제 기초과학 성과포럼에서 확장된 선도 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초과학 성과 공유가 한층 확장된 자리다.

G-랩(LAMP)사업단은 중점테마연구소인 물질에너지기초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우수 연구자들의 교류 기회를 넓히고, 물질·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드미트리 팔라핀 교수(Dmitri V. Talapin)는 '반도체 양자 소재의 응용 열 내에서의 획기적인 합성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인도네시아 반동공과대학교 아셉 푸르콘 교수(Acep Purqon)는 '정정 에너지 활용을 위한 희토류 도핑 질화갈륨의 전자

기 광학 특성 확률밀도함수 계산 연구'를 소개한다.

국내 연사로는 충북대학교 중점테마연구소장(첨단기초과학융합연구소장)인 김동현 교수가 초청돼 충북대 중점테마연구소 운영 사례와 자성 연구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사업단 간 공동 프로그램 추진 등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G-랩(LAMP) 사업 참여 연구진 28명이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를 공유하며 전북대의 연구 역량을 선보이는 동시에, 국제공동연구 확장 가능성도 점검한다. 이 가운데 양대 연구자들이 참여해 연구성과와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

김희선 전북대 G-랩(LAMP)사업단장은 "지난 국제성과포럼에 이어 두 번째 성과포럼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이 국내외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를 극대화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026학년도 유치등교사 신규임용 최종합격자 발표

총 117명... 유 57명 · 초 54명 · 특수(유) 5명 · 특수(초) 1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오전 10시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신규임용 시험 최종합격자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te.go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총 117명으로 분야별로는 유치원 57명(일반 56명·장애 1명), 초등학교 54명(일반 53명·장애 1명), 특수유치원 5명(일반, 특수초등 1명(일반)이다.

개인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28일 오전 10시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odurecruit.jt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신규임용시험은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제1차 시험(100점)은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평가로, 제2차 시험(100점)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실연으로 진행됐다. 초등의 경우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이 별도로 실시됐다. 최종합격자는 제2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했다.

전북교육청은 2월 중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육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한 임용 전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며, 선발분야별 연수기간과 수강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최종 합격자를 중심으로 축하드리며, 신규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호원대, K-미래인재대학 사회공헌단 출범

교육 나눔 ·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27일,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성인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지역 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호원대 K-미래인재대학 사회공헌단을 공식 출범했다.

호원대 K-미래인재대학 사회공헌단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교육 나눔 △재능 기부 △지역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성인 학습자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참여형 사회공헌 모델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의봉 호원대 RISE 사업단장은 "호원대 K-미래인재대학 사회공헌단 출범은 대학의 교육 성과를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호원대 김나영 K-미래인재대학장은 "이번 사회공헌단 출범은 RISE 사업이 지향하는 지역혁신과 성인학습 가치 실현을 구체화한 시점"이라며,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배움과 경험을 지역에 환원하며 새로운 역할과 자긍심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학교는 RISE 사업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호원대 K-미래인재대학 사회공헌단을 중심으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상생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